

중국 13차 5개년 계획기간의 지역별 정책방향: 중부지역

동북아경제본부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정지현 부연구위원
동북아경제본부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박진희 연구원



중국 13차 5개년 계획기간의 지역별 정책방향 중부지역

요약

- ▶ 중부지역은 13·5계획 기간 투자주도로 중국 평균(6.5%)을 상회하는 8% 이상의 높은 성장을 추구하면서 성별로 특화된 경제권을 조성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후베이(湖北), 허난(河南), 산시(山西) 등 6개 성을 포함하는 중부는 경제발전이 상대적으로 뒤쳐진 내륙 지역으로 대외개방도가 낮아 투자를 주요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도시화도 미흡하여 13·5 기간에도 성장을 지탱할 투자 여력이 남아 있음.
 - 다만, 산시성은 공급측 개혁이 불가피하여 샤오강(小康)사회 건설을 위해 설정한 성장률 목표(6%)를 달성 하기도 어려울 전망이다.
 - 중부 6개 성은 각 지역의 경제적 수요에 따라 주변 경제권에 편입되거나 독자 경제권을 구축하려는 역내 경제권 분화 현상이 나타나며, 전반적인 성장 둔화가 예상되는 13·5 기간에는 이러한 현상이 심화될 것임.
 - 빈곤 탈피는 소득수준이 낮은 중부지역의 13·5 기간 주요 정책의 하나이므로, 빈곤구제와 관련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에 참여하여 기업 이미지 및 신뢰도 제고, 현지 정부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하여 현지시장 진출기반을 확대할 수 있음.
- ▶ 후베이성은 경제적 위상 제고를 목표로 고속성장(중국 평균의 1.5배)을 추구하고 있으며, 중부 유일의 한국 공관을 활용하여 정부간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할 필요가 있음.
 - 13·5계획 기간 정책방향은 과학기술 혁신능력 제고 및 이의 경제성과화, 개방환경 강화임.
 - 후베이성 13·5계획에는 수운 연계통로 개발, 스마트시티 건설, 문화 등이 한국과의 협력 분야로 명시되어 있는바, 이와 관련된 시장진출 기회 발굴을 위해 한-후베이 정부간 상호협력 수요, 분야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긴밀한 협의가 필요함.
 - 진출지역으로는 성도인 우한시, 우한시에 과잉 집중된 경제기능을 분화하는 과정에서 부상할 이창(宜昌)시, 상양(襄陽)시 등이 유망함.
- ▶ 허난성은 내륙이라는 지리적 제약을 항공물류와 e-trade로 극복하기 위해 13·5 기간 동안 공항경제시범 구의 본격 발전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며, 한국 일용소비재(FMCG) 수출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음.
 - 항공물류의 시너지를 제고할 수 있는 전자정보산업 및 전자상거래 발전, 복합 물류인프라 강화, 개방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고급 인재 유치를 강조함.
 - 최근 신선우유, 화장품 등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물류 환경과 e-trade 우대정책 등을 활용하여 한국의 신선우유, 삼계탕, 김치, 화장품, 미용용품 등의 수출 확대가 가능함.
- ▶ 산시성은 석탄산업 구조조정과 여타 산업 육성에 집중할 계획이므로 중국 공급측 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가늠해 보고 신규 성장동력산업 관련 경제협력을 타진해볼 수 있음.
 - 중앙정부의 공급측 개혁에 맞추어 석탄산업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나 재정적자 확대와 대량 실업, 이로 인한 소비 위축까지 예상되어 구조조정의 고통 파급이 불가피함.
 - 신에너지, 서비스, 신산업 등 신규로 육성할 산업에 대한 정책지원 및 우대혜택이 예상됨에 따라 향후 산시성 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협력분야 발굴이 필요함.



차 례

1. 중부지역의 경제 개황
2. 중부지역 13·5규획의 주요 내용
 - 가. 12·5규획과의 비교
 - 나. 5대 키워드 분석
3. 지역별 13·5규획의 핵심정책
 - 가. 후베이성: 양적·질적 성장을 통한 대내외 위상 강화
 - 나. 허난성: 정저우 공항경제시험구 본격 발전
 - 다. 산시성: 석탄산업 구조조정
4. 평가 및 전망
 - 가. 지역 종합
 - 나. 후베이성
 - 다. 허난성
 - 라. 산시성

참고문헌

1. 중부지역의 경제 개황

- 중국의 중부 6개 성(省)은 경제발전 수준이 높지 않은 지역이지만, 12·5 계획) 기간 동안 주요 경제분야에서 빠른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무역 및 외국인직접투자(FDI) 등 대외개방 측면에서의 위상이 크게 제고되었음(표 1 참고).
- 2014년 중부지역 중 후베이(湖北, 47,145위안)성을 제외한 허난(河南)성, 후난(湖南)성, 안후이(安徽)성, 장시(江西)성, 산시(山西)성의 1인당 GRDP는 중국 전체 평균(46,629위안)보다 낮은 수준으로 중국 내 중하위권에 분포함²⁾
- 2011~15년 중 중부지역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9.4%로 중국 평균보다 2%p 높았으며 산시성(6.7%)을 제외한 5개 성 모두 9~10%대 성장률을 달성함.
- 이러한 중부지역의 경제성장은 소비보다는 투자 증대에 기인한 것으로, 고정자산투자가 연평균 19.4%씩 증가하여 중국 평균보다 4%p 이상 높았던 데 반해 소비재 소매판매액 증가율은 중국 평균보다 1%p 높은 14.1%에 그침.
- 특히 후베이성과 후난성의 투자증가율이 각각 22.5%와 21.6%로 가장 높았으며, 소비증가율은 안후이성이 15.8%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음.
- 12·5 기간 중국 전체 교역규모 및 FDI는 연평균 2.1% 및 6.3%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내륙이라는 지리적 제약으로 대외 개방도가 낮았음에도 중부지역 수출입 및 FDI는 각각 12% 및 12.4%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중국 전체 수출입 및 FDI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p 및 4.2%p 높아짐.
- 중국 전체 교역액 중 중부지역의 비중은 2015년 6.5%로 여전히 작은 편이지만 최근 증가세가 빠르며, 특히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여 전체 수출 중 중부지역 비중이 2011년 4.9%에서 2015년 7.3%로 크게 확대됨(그림 1 참고).
- 허난성(22.3%)과 후난성(18.6%) 등을 중심으로 중부지역의 수출증가율이 중국 평균(4.7%)을 크게 상회하는 15.6%에 달하였으며, 수입증가율 역시 중국 전체(-0.9%)는 떨어진 반면 중부지역은 6.4% 확대됨.
- 또한 2014년 중국 전체 FDI 중 중부지역의 비중이 21.2%에 달하였고 그중 허난성의 비중(5.6%)이 가장 크며, 안후이성과 후베이성의 FDI 증가율이 16.8%와 14.2%로 가장 높았음.

표 1. 중국 중부지역의 경제규모 및 위상

항목	규모			중국 내 비중			
	2011년	2015년	연평균성장률(%)	2011년(%)	2015년(%)	증감률(%)	
GRDP (억 위안)		104,474	147,140	9.4[7.4]	21.6	21.7	0.2
	허난	26,931	37,010	9.1	5.6	5.5	-0.1
	후베이	19,632	29,550	10.0	4.1	4.4	0.3
	후난	19,670	29,047	9.9	4.1	4.3	0.2
	안후이	15,301	22,006	10.1	3.2	3.3	0.1
	장시	11,703	16,724	10.0	2.4	2.5	0.1
	산시	11,238	12,803	6.7	2.3	1.9	-0.4
고정자산투자 (억 위안)		70,824	143,860	19.4[15.4]	22.7	26.1	3.3
	허난	17,769	34,951	18.4	5.7	6.3	0.6
	후베이	12,557	28,251	22.5	4.0	5.1	1.1
	후난	11,881	25,954	21.6	3.8	4.7	0.9

1) 이하 본문에서는 제12차 5개년 계획은 12·5 계획, 제13차 5개년 계획은 13·5 계획으로 약칭함.

2) 같은 해 허난성, 후난성, 안후이성, 장시성, 산시성의 1인당 GRDP는 각각 37,072위안, 40,271위안, 34,425위안, 34,674위안, 35,070위안임.

	안후이	12,456	23,966	17.8	4.0	4.3	0.3
	장시	9,088	16,994	16.9	2.9	3.1	0.2
	산시	7,073	13,745	18.1	2.3	2.5	0.2
		36,957	62,577	14.1[13.1]	20.1	20.8	0.7
소비재 소매 판매액 (억 위안)	허난	9,454	15,740	13.6	5.1	5.2	0.1
	후베이	8,275	13,978	14.0	4.5	4.6	0.1
	후난	6,885	12,024	15.0	3.7	4.0	0.3
	안후이	4,955	8,908	15.8	2.7	3.0	0.3
	장시	3,485	5,896	14.0	1.9	2.0	0.1
	산시	3,903	6,030	11.5	2.1	2.0	-0.1
		1,628	2,559	12.0[2.1]	4.5	6.5	2.0
수출입규모 (억 달러)	허난	326.1	739.0	22.7	0.9	1.9	1.0
	후베이	335.8	456.7	8.0	0.9	1.2	0.2
	후난	190.0	301.9	12.3	0.5	0.8	0.2
	안후이	313.4	482.6	11.4	0.9	1.2	0.4
	장시	316.0	430.9	8.1	0.9	1.1	0.2
	산시	147.6	147.7	0.0	0.4	0.4	0.0
		357	569*	12.4[6.3]*	17.0	21.2*	4.2*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허난	100.8	149.3*	10.3*	4.8	5.6*	0.8*
	후베이	46.6	79.3*	14.2*	2.2	3.0*	0.7*
	후난	61.5	102.7*	13.7*	2.9	3.8*	0.9*
	안후이	66.3	123.4*	16.8*	3.2	4.6*	1.4*
	장시	60.6	84.5*	8.7*	2.9	3.2*	0.3*
	산시	20.7	29.5*	9.3*	1.0	1.1*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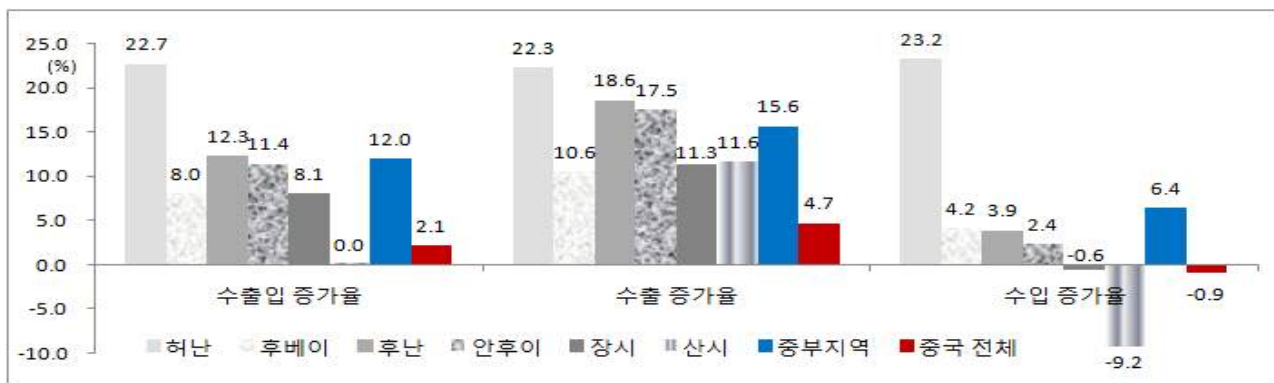
주: GRDP의 연평균성장률은 실질성장률이며, 나머지 지표의 연평균성장률은 명목성장률임.

* 외국인직접투자 데이터는 2015년 데이터가 아직 발표되지 않아 2014년 데이터를 적용하였음.

[]는 해당항목의 중국 전체 연평균성장률.

자료: 「2016年河南省政府工作报告」(2016), 「2016年湖北省政府工作报告」(2016), 「2016年湖南省政府工作报告」(2016), 「2016年安徽省政府工作报告」(2016), 「2016年江西省政府工作报告」(2016), 「2016年山西省政府工作报告」(2016), 중국국가통계국 연도별 통계연감, CEIC Database.

그림 1. 중국 중부지역의 수출 및 수입 증가율(2011~15년)



주: 2011~15년의 4년중 연평균증가율임.

자료: CEIC Database.

- 산시성을 제외한 중부 5개 성 모두 12·5 기간의 경제성장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13·5규획 기간에도 비교적 높은 성장을 목표로 설정함.
- 중국경제 전반의 성장 둔화세가 중부지역에도 나타나고 있으나 중국 경제성장률이 7% 이하로 하락한 2015년에도 대다수 중부지역은 8~9%의 성장률을 유지하였음.



- 다만, 석탄산업에 의존적인 경제구조(GDP의 80%)를 특징으로 하는 산시성은 석탄산업 불황, 과잉생산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2013년 하반기 이후 중국 31개 성 중에서 경제성장률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o 산시성의 성장률은 2013년까지 중국 평균 성장률을 상회하였으나, 2014년에는 4.9%로 전국 최하위, 2015년에는 3.1%로 랴오닝(3.0%) 다음으로 낮은 성장률을 기록함.
- o 최근 석탄산업은 판매 감소, 재고 증가, 가격 및 수익 하락 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조세수입 등 산시성의 재정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³⁾
- 산시성을 제외한 5개 성은 12·5 기간의 성장목표(9~10%)를 0.5~0.6%p 격차로 초과 달성하였으며, 13·5 기간의 성장목표를 국가 목표인 '중고속 성장'보다는 높은 '비교적 빠른 성장'으로 제시
- o 중부지역의 2016년 성장률 목표는 2015년 목표 및 달성치와 유사한 수준인 8~9%로 설정함.
- o 2015년 성장률 목표를 큰 차이(-2.9%p)로 달성하지 못한 산시성의 경우에도 2016년 목표를 2015년 목표와 동일한 수준(6%)으로 설정함.

표 2. 중부지역 경제성장률 추이 비교

(단위: %)

	기간 비교			연도별 추이							
	12·5기간(2011-2015년)		13·5기간 (2016-2020년) 목표 성장률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목표 성장률	
	목표성장률	실제성장률*						목표치	증감 여부		
허난	9 이상	9.6	비교적 빠른 성장	11.9	10.1	9	8.9	8.3	8	8 내외	동일
후베이	10 이상	10.7	비교적 빠른 성장	13.8	11.3	10.1	9.7	8.9	9	9 내외	동일
후난	10 이상	10.5	8.5 내외	12.8	11.3	10.1	9.5	8.6	8.5	8.5 내외	동일
안후이	10 이상	10.8	전국·중부 선두권	13·5	12.1	10.4	9.2	8.7	8.5	8.5 내외	동일
장시	10 이상	10.5	8.5 내외	12·5	11	10.1	9.7	9.1	9	8.5 이상	-0.5%p
산시	10	7.9	비교적 빠른 성장	13	10.1	8.9	4.9	3.1	6	6 내외	동일
중국 전체	7	8	중고속 성장 유지(6.5%)	9.5	7.7	7.7	7.3	6.9	7.0	6.5~7	-0.5%p ~0

주: 1) 실제성장률은 각 지역의 정부업무보고에서 발표한 12·5 기간 동안 실제로 달성한 연평균성장률(2010~2015년의 5년간 연평균성장률)

2) 증감여부는 2015년 목표치 대비 2016년의 목표성장률의 변화를 의미

자료: 정지현(2011), p. 6; 2016年河南省政府工作报告(2016); 「2016年湖北省政府工作报告」(2016); 「2016年湖南省政府工作报告」(2016); 「2016年安徽省政府工作报告」(2016); 「2016年江西省政府工作报告」(2016); 「2016年山西省政府工作报告」(2016); 중국국가통계국 연도별 통계연감.

■ 본 보고서에서는 중부지역 내 경제적 위상, 한국과의 연관성, 독특한 경제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2016년 정부 업무보고」 등의 분석자료 접근이 가능한 허난, 후베이, 산시 3개 성을 분석 대상으로 함.

- 주요경제지표에서 중부지역 내 최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허난성은 특히 최근 수출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주요 수입국으로 EU를 제치고 한국이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함.
- o 2011~15년 허난성의 수출입 증가율은 연평균 22.7%, 특히 수입 증가율은 23.2%로 중국 내 최고 수준을 기록

3) 「山西日报头版刊文：如何看待2.7%经济增速」(2015. 7. 28), http://www.guancha.cn/economy/2015_07_28_328479.shtml(검색일: 2016. 2. 23).

- 2015년 허난성과 한국 간 교역은 94.1억 달러로 전년대비 25.9% 증가한 반면, EU와의 교역은 11.9% 감소한 67.3억 달러였음.⁴⁾
- 2015년 한국의 대중국 지역별 수출액을 기준으로 허난성은 장쑤(24.5%), 광둥(23.0%), 상하이(11.6%), 산둥(11.1%), 톈진(6.6%)에 이어 6위(내륙지역 1위)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베이징(北京), 저장(浙江), 랴오닝(辽宁) 등 대외교역이 활발한 연해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임.⁵⁾
-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 허난성의 비중이 2013년 3%(8위)에서 2014년 3.3%(8위), 2015년 4.5%(6위)로 비교적 빠르게 확대
- 후베이성은 경제규모와 투자, 소비 등 내수측면에서는 중부지역 2위인 반면 교역 및 FDI에서는 그 위상이 낮은 지역이나 중국 내 8번째 총영사관을 후베이성 우한(武汉)에 설립(2010년)한 이래 한국과의 교류는 증대되고 있음.
- 2013년 SK화학이 중국 시노펙과 우한 에틸렌 프로젝트(한중간 최대규모의 석유화학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2014년 한국의 대후베이성 투자가 3.7억 달러(4위, 전체의 11.8%)에 달함.⁶⁾
- 산시성은 석탄자원 의존적인 경제구조로 인하여 최근 경제성장률이 급락하여 중국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음.
- 한편 안후이성은 다른 중부지역과 달리 경제성장에 있어 소비와 수출의 영향력이 비교적 크며 FDI도 빠르게 증가한 지역이나 2016년 양회(两会)를 2월 중순에 개최하여 정부업무보고 발표가 지연됨에 따라 본 보고서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2. 중부지역 13·5계획의 주요 내용⁷⁾

가. 12·5계획과의 비교

- 12·5 기간 주요경제지표의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던 중부 3개 성(省)은 13·5 계획기간의 성장률 목표 등 양적 성장지표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발전지역 대비 질적 성장지표에 대한 언급이 미미한 수준임.
- 후베이성과 허난성은 13·5 기간 경제성장률 목표를 중국 평균보다 각각 1.5배 및 1%p 이상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였으며, 산시성은 샤오강(小康)사회⁸⁾ 실현을 위해 달성해야 하는 최소한의 성장률(6~6.5%)을 목표로 설정함.
- 중앙정부가 13·5 기간 성장률 목표를 6.5% 이상으로 확정함에 따라, 후베이성과 허난성은 각각 연평균 9.5% 및 7.5% 이상을 최저기준을 삼을 것임.

4) 「韩国超越欧盟成为河南第二大贸易伙伴」(2016. 2. 13), 中国网 <http://henan.china.com.cn/html/news/2016/0203/18549.html>(검색일: 2016. 2. 24)

5) 한국무역협회 중국통계, <http://stat.kita.net/stat/istat/cts/CtsProvImpExpList.screen>(검색일: 2016. 2. 27)

6) 한국의 대후베이성 투자규모는 2015년까지 누적기준 5.8억 달러로, 전체 대중투자의 1.1%에 불과하나, 2014년 이후 그 비중이 크게 채고됨.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keri.koreaexim.go.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007003001001>(검색일: 2016. 2. 28)

7) 3개 지역이 2015년 말 발표한 「13차 5개년 계획 제정에 관한 건의문(이하 13·5 건의문)」과 「2016년 정부업무보고」를 참고하여 작성.

8) 샤오강(小康)사회는 중국 인민 모두가 중산층 이상인 '잘사는 사회'를 말하며, 중국정부는 2020년까지 전면적인 샤오강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2020년 GDP와 주민 1인당 소득을 2010년의 두 배 수준으로 늘리고, 앵겔지수를 35%까지 낮추는 한편 도시화율을 56%로 높일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를 위해 후베이성, 허난성, 산시성은 13·5 계획 첫 해인 2016년의 목표 성장률을 각각 9%, 8%, 6%로 제시함. 후베이성과 허난성 모두 중앙정부의 2016년 목표(6.5~7%)보다 각각 2~2.5%p, 1~1.5%p 높게 제시하였으나, 산시성은 0.5~1%p 낮은 수준임.
- 이들 지역 모두 13·5 기간의 투자, 소비, 무역 등과 관련된 양적성장 지표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으며, 샤오캉사회 달성 기준(2020년 GRDP 및 1인당 GRDP의 2010년 대비 2배 이상)을 충족시키는 개괄적인 목표만 제시함.
- 한편, 상하이, 장쑤 등 연해 발전지역에서 GRDP 대비 R&D 비중, 3차 산업 비중 등 경제구조 개선을 반영하는 지표의 목표치 및 관련 계획을 제시한 것과는 상반되게 중부지역에서는 질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한 목표 수준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음.

표 3. 중부지역 125규획과 135규획 주요 경제목표의 비교

항목	후베이성			허난성			산시성		
	125 목표치	125 달성치	135 목표치	125 목표치	125 달성치	135 목표치	125 목표치	125 달성치	135 목표치
GRDP 연평균 성장률(%)	10 이상	10.7	비교적 빠른성장	9 이상	9.6	비교적 빠른성장	10	7.9	비교적 빠른성장
1인당 GRDP(위안)	\$6,000	\$8,000	-	38,000	39,000	-	-	-	-
고정자산투자액(억 위안)	20,000	28,251	-	[15]	[18.4]	-	50,000*	54,251*	-
소비재 소매 판매액 (억 위안)	-	13,978	-	-	15,740	-	-	6,030	-
수출입총액(억 달러)	450	456.7	-	450	739.0	-	-	147.7	-
도시화율(%)	52 이상	56.85	61	48	46.9	-	55	55	-
1인당 도시주민 가처분소득(위안)	[10]	27,051 [11.2]	2010년의 두 배	24,469	25,576	2010년의 두 배	30,000	25,828	2010년의 두 배
1인당 농촌주민 순소득(위안)	[10]	11,844 [13.2]	2010년의 두 배	8,460	10,853	2010년의 두 배	9,000	9,454	2010년의 두 배

주: [] 안의 수치는 연평균 성장률, *는 5년 간의 합.

자료: 정지현(2011), p. 6, 『2016年河南省政府工作报告』(2016); 『2016年湖北省政府工作报告』(2016); 『2016年湖南省政府工作报告』(2016); 『2016年安徽省政府工作报告』(2016); 『2016年江西省政府工作报告』(2016); 『2016年山西省政府工作报告』(2016); 『山西省发布2015年经济运行情况』(2016); 『2015年河南经济运行稳中有进、稳中向好』(2016), CEIC Database.

■ 중부 지역은 12·5 기간에 추진했던 기술혁신 기반의 전통적 우위산업 고도화, 신산업 및 서비스업 육성, 소비확대 등을 통한 경제구조 조정을 중심으로 역내 거점지역 발전전략 및 사회보장정책을 13·5 기간에도 지속 추진

- 우한도시권(武汉城市圈, 후베이), 중위안도시군(中原城市群, 허난), 타이위안도시권(太原都市圈, 산시) 등 각 지역 내 핵심 도시군을 중심으로 지역개발 지속 추진
- 공공인프라 보급 확대, 주민소득 증대, 사회보장제도 개선, 의료·교육서비스 보급 확대 등 민생 개선사업도 지속

■ 반면, 12·5 기간과 달리 일대일로 및 창장경제벨트와 같은 전국적인 발전전략에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표명하고 고속성장을 최우선시하는 성장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구조조정과 혁신도 비중있게 강조하고 있음.

- 중부지역 내에 한정된 중부굴기(中部崛起)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지난 지역개발전략에서 벗어나 창장(长江)경제벨트, 징진지(京津冀) 협동발전과 같은 국가 전략과의 연계·통합을 강조

- 특히 허난성, 후베이성, 산시성 모두 일대일로 전략에 맞추어 일대일로 루트에 해당되는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강화 확대 하는 것을 대외개방정책의 중점과제로 채택
- 대내외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13·5규획 기간 동안에도 중부지역은 여전히 평균 이상의 성장을 중시하고 있지만 12·5 시기에 비하여 산업 고도화, 혁신, 개혁 등과 관련된 정책이 다양화, 구체화됨.

나. 5대 키워드 분석⁹⁾

- 후베이성, 허난성, 산시성은 모두 13·5규획의 주요 정책방향을 혁신을 최우선으로 하여 조화, 녹색, 개방, 공유(共享) 순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기반산업, 비교우위 등에 따라 혁신과 개방 분야의 세부정책에서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남.

표 4. 중부지역 13·5규획 건의문: 혁신정책

후베이		허난		산시	
목표	주요 과제	목표	주요 과제	목표	주요 과제
전국 상위 수준의 경제발전	신성장동력 육성, 과학기술 및 산업 혁신, 새로운 발전 시스템 구축, 혁신형 사회 건설	발전의 신동력 육성	수요·공급 공동 발전, 적극적·개방적 혁신 추진, 현대적 산업시스템 및 새로운 발전 시스템 구축, 인력자원 강화	경제구조 전환·업그레이드	신성장동력 육성, 석탄·비석탄산업 혁신, 농업 현대화 강화, 신규 발전공간 개척, 과학기술·민영경제·금융발전을 위한 개혁 추진

자료: 「中共湖北省委关于制定全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2016); 「中共河南省委关于制定全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2016); 「中共山西省委关于制定全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2015).

- [혁신] 전통 우위산업 고도화, 신산업 및 서비스업 육성, 민간경제 확대와 금융시스템 발전 등을 통한 신체제 구축을 세 지역 모두 제시하고 있으며, 그중 후베이성은 과학기술 혁신 및 창업 정책을, 허난성 및 산시성은 각각 고급인력 양성 및 석탄산업 혁신을 강조
- 광(光)산업의 메카인 후베이성은 과학기술 중심지를 목표로 기초연구 및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면서 창업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국제 창업대회를 개최하고 창업 카페, 창업 스트리트와 같은 창업 플랫폼을 조성할 계획
-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2016년도 사업으로 광전자, 3D프린터, 차세대 정보기술 등 15개 중점분야에서 성(省)급 기술혁신 프로젝트를 100개 이상 추진하고 이를 위해 4억 위안을 투자할 계획임.
- 베이징에 이어 중국 제2의 창업유망도시로 선정된 우한(후베이성 성도)¹⁰⁾은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창업기업 및 관련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우대 정책 및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음.
- 이러한 혁신을 통해 차세대 디스플레이, 스마트장비, 신에너지자동차, 바이오의약, 첨단의료기기 등의 신산업과 금융, 물류, 헬스케어, 디자인, 비즈니스컨벤션, 관광 등의 서비스업을 육성할 계획

9) 중앙정부의 「13·5 규획 제정에 관한 건의」에서 제시되었던 혁신, 조화, 녹색, 개방, 공유를 키워드로 함.

10) 중국 표준순위연구원(标准排名研究院)이 발표한 "2015년 중국 최고 창업유망도시 순위(2015年中国大陆最宜创业城市排行榜)"에 따르면, 10위권 내 창업도시는 순서대로 베이징, 우한, 항저우, 상하이, 난징, 광저우, 선진, 청두, 쑤저우, 시안임. 관련 전문가는 우한이 2위를 차지한 원인에 대하여 일련의 우대정책과 창업·혁신 플랫폼의 지속적인 구축 때문이라고 평가함. 「2015中国最宜创业城市排行榜 武汉仅次于北京排第二」(2015. 12. 31), 荆楚网 <http://hb.qq.com/a/20151231/013837.htm>(검색일: 2016. 2. 25).



- 1억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나 고급인재가 부족한 허난성은 노동자 기술훈련제도를 강화하고 국내외의 고급기술자 및 경영인 유치에 역점을 두면서 2016년 사업으로 금융, 물류, 전자상거래, 항공경제 분야의 부족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고급인재 육성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해외 고급인재 혁신단지를 건설하고자 함.
- 13·5 기간 장비제조, 식품가공 등의 기존 우위산업을 첨단화함과 동시에 전자정보산업 관련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며 물류, 금융, 관광 등의 서비스업을 육성에 역점을 둔.
- 석탄의 고효율 및 청정 이용 등을 위하여 석탄기업의 합병 및 석탄·전력산업의 통합을 추진하려는 산시성은 중앙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맞추어 석탄생산능력을 감축하고 석탄기업과 전력·화학·철강 기업 간의 연합경영을 추진해 석탄 이용 효율을 제고하는 산업체인 구축을 2016년부터 추진할 계획임.
- 우위산업인 석탄, 야금, 장비제조 등을 업그레이드하고 신에너지자동차, LED, 태양광 등의 신산업과 관광, 물류, 컨벤션, 숙박·요식업, 건강·양로서비스 등 서비스업을 육성하고자 함.

표 5. 중부지역 135 규획 건의문: 조화

후베이		허난		산시	
목표	주요 과제	목표	주요 과제	목표	주요 과제
일원다층 (一元多層次) ¹⁾ 구조 심화	양권양대일군(兩圈兩帶一群) 중심의 균형발전 및 신형도시화 추진, 기초인프라 강화, 문화의 소프트파워 강화	균형발전의 틀 구축	중위안(中原)도시군 통합발전 강화, 도농협조발전 추진, 물질·정신문명 균형 발전	균형발전의 틀 구축	경제사회 조화발전 및 도농 협조발전, 지역 협조발전 강화, 물질·정신문명 균형 발전

주: 1) 일원다층(一元多層次)이란 후베이가 중부굴기(중양정책)의 거점이 되는 것을 최우선(一元) 목표로 하여 후베이 역내 국부적인 지역발전계획, 산업기지 및 주요 도시 발전계획 등 다양한(多層次) 소규모 지역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후베이의 특색 전략

자료: 「中共湖北省委关于制定全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2016); 「中共河南省委关于制定全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2016); 「中共山西省委关于制定全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2015).

■ [조화] 중부 3개 지역은 도시군 중심의 조화발전, 도농 협조발전, 공공문화서비스 보급 및 문화산업 육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중 후베이성은 지역균형발전을, 허난성 및 산시성은 성도(省都) 중심의 확대발전을 강조

- 성도인 우한시의 경제집중도가 높은 후베이성은 "양권양대일군(兩圈兩帶一群)", 즉 우한도시권(武汉城市圈), 어시생태문화관광권(鄂西生态文化旅游圈)의 두 권역과 창장경제벨트(长江经济带), 창장중류생태문명시범벨트(长江中游生态文明示范带)의 두 벨트 및 창장중류도시군(长江中游城市群) 전략을 중심으로 우한시의 경제 기능을 분화하고 후베이성 전역을 대상으로 지역 간 조화발전을 추진¹¹⁾
- 또한 후베이일보·후베이방송 등을 전국적인 주류 미디어로 발전시키는 등 문화산업을 강화해 문화산업이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전국 평균 수준 이상으로 높일 계획임.
- 성도인 정저우(鄭州)시의 경제적 위상이 높지 않은 허난성은 중위안도시군 전략을 지속 발전시켜 정저우의 비즈니스·교통·물류·금융 기능을 강화하면서 뤼양(洛阳), 카이펑(开封), 쉬창(许昌) 등 주변 핵심 지역과 정저우 간 교통인프라 확대를 통한 30분 생활권을 조성하여 도시군 내 연계를 강화할 계획
- 타이위안도시권(太原都市圈)을 조성 중인 산시성은 성도인 타이위안(太原)시와 인근 소도시 진중(晋中)과의 통합(同城化)

11) 후베이성 면적의 4.6%에 불과한 우한시의 인구는 성 전체의 17% 정도인 1,000만 여명 이상이고, GRDP는 전체의 37% 이상, FDI 및 무역 등은 60~70%를 차지할 정도로 우한시의 집중도가 매우 높음.

을 추진하면서 진중108벨트(晋中108廊带) 일체화 발전을 통해 진중에서 서남쪽으로 뻗어내려가는 108번 국도에 인접한 지역간의 연계발전에 주력하고 있으며, 문화산업의 수출 및 문화 관광 융합발전을 강화

표 5. 중부지역 13·5규획 건의문: 녹색정책

후베이		허난		산시	
목표	주요 과제	목표	주요 과제	목표	주요 과제
자원절약형·환경친화형 사회 건설	주체기능구(主体功能区) 건설 강화, 저탄소 순환경제 발전, 생태보호·환경관리체계 건설, 환경 거버넌스 제도 강화	아름다운 환경 조성	주체기능구(主体功能区) 건설 강화, 자원 절약 및 이용효율 제고, 에너지구조 개선, 환경 거버넌스 제도 강화, 생태환경 건설 강화	아름다운 환경 조성	주체기능구(主体功能区) 건설 강화, 저탄소 순환경제 발전, 자원 절약 및 이용효율 제고, 환경 거버넌스 제도 강화, 생태안전 보호벽 구축

자료: 「中共湖北省委关于制定全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2016); 「中共河南省委关于制定全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2016); 「中共山西省委关于制定全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2015).

■ [녹색] 저탄소 순환경제 발전, 자원 절약 및 이용효율 제고, 환경보호 관리감독 강화 등을 위하여 후베이성은 탄소배출 통제 강화에, 허난성과 산시성은 석탄 사용의 청정화·고효율화 및 에너지구조 개선에 역점을 둠.

- 이들 지역 모두 폐기물 재활용, 생활오수 및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 대기오염 검측·예방시스템 구축, 천연림 보호제도 마련 등의 환경보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지로 지정되어 2014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후베이성은 전력, 강재, 건자재, 화공 등 중점산업의 탄소배출을 통제하고 공업, 건설, 교통, 농업 분야 및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에너지절약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면서 친환경 시공 및 건자재 사용을 장려할 계획
- 석탄 생산이 많은 허난성과 산시성은 석탄을 대체할 신에너지산업을 육성할 방침으로, 허난성은 풍력, 태양광, 천연가스를, 산시성은 풍력, 태양광, 지열, 석탄층 메탄가스의 이용률을 각각 제고하고자 함.

표 6. 중부지역 13·5규획 건의문: 개방정책

후베이		허난		산시	
목표	주요 과제	목표	주요 과제	목표	주요 과제
내륙개방의 고지(高地) 건설 강화	일대일로 건설 참여, 후베이성 국제화 수준 제고, 유통허브 구축 및 대외개방 환경 강화, 성급 협력과 역내 일체화 발전 촉진	전략적 신공간 확대	정저우 항공경제종합시험구 경쟁력 강화, 일대일로 건설 참여, 투자유치 지속 추진, 대외개방 플랫폼 개선	협력의 신공간 창출	대외개방 환경 강화, 투자유치 수준 제고, 석탄을 매개로 한 대외 협력 강화, 일대일로 건설 참여, 징진지·환발해 지역과의 공동 발전 추진

자료: 「中共湖北省委关于制定全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2016); 「中共河南省委关于制定全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2016); 「中共山西省委关于制定全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2015).

■ [개방] 중부 3개 지역은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 네거티브 관리방식을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대외개방 플랫폼을 구축하여 개방환경을 개선하면서 각 지역에 특화된 일대일로 활용 전략을 통해 대외 무역·투자 협력을 확대할 계획임.

- 후베이성은 우한, 이창(宜昌) 등 역내 거점지역에 내륙형 자유무역구를 건설하고 우한시에 전국적인 유통허브를 구축하면서 일대일로 해당 지역과 장비제조, 기초인프라 건설 및 교역 확대 등을 위한 경제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 대외 경제협력사업의 기반이 되는 외국 영사관 및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고, 창장경제벨트를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는 종합 교통망을 활용해 우한을 국가급 유통 거점도시로 발전시키면서 우한 내 한커우베이(汉口北)의 물류·도매시장 기능을 강화
- 허난성은 정저우 항공경제종합시험구(郑州航空港经济综合实验区, 이하 공항경제시험구)를 중심으로 교통·물류 기능을 강화하고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개방여건을 향상시키고, 일대일로 전략에 맞추어 해외 에너지 개발과 농업·장비제조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
- 공항경제시험구는 교통·물류기능을 강화하고 항공운송에 적합한 전자정보산업과 같은 신산업 및 유관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 공항경제시험구 발전계획(2013~15년)이 중앙정부의 비준을 받으면서 다양한 산업기능이 집적된 종합시험구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¹²⁾
- 또한 기존 역내 교통인프라의 해외연계를 위하여 2016년에 폴란드 철도공사, 룩셈부르크 철도공사 및 항공회사와 협력하여 정저우-유럽 간 항공·철도 연계시스템을 강화
- 산시성은 보세구 건설,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대외개방 환경을 개선하고, 일대일로 전략을 활용해 해외 원자재 개발 및 채굴·가공기지 건설, 기술·설비·노무 수출 및 인프라건설 분야 진출에 주력할 방침
- 국제 저탄소 고위급 포럼을 개최하여 석탄산업 분야의 성과 홍보 및 신기술 판매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해외 주요 석탄산지 및 일대일로 해당 국가에 석탄, 석탄화공 및 관련 기계장비 분야 진출 확대
- 한편, 현재 중부로 분류되는 산시성은 13·5기간 국가급 지역발전전략으로 강조되고 있는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 경제권과의 통합도 추진하고자 함.

표 7. 중부지역 13·5 획 건의문: 공유

후베이		허난		산시	
목표	주요 과제	목표	주요 과제	목표	주요 과제
민생 증진	빈곤탈피, 교육현대화, 취업·창업 촉진, 의료시스템 개혁, 소득분배 및 사회보장제도 개선, 인구 균형발전 촉진	행복한 생활환경 조성	빈곤탈피, 취업·창업 촉진, 주민소 득 확대, 사회보장제도 개선, 교육의 질 향상, 의료시스템 개혁, 인구 균형발전 촉진	민생 개선	공공서비스 공급 확대, 빈곤탈피, 교육의 질 향상, 취업·창업 촉진, 소 득분배 및 사회보장제도 개선, 건강수준 제고, 인구 균형발전 촉진

자료: 「中共湖北省委关于制定全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2016); 「中共河南省委关于制定全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2016); 「中共山西省委关于制定全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2015).

- [공유] 빈곤탈피, 의무교육 강화 및 취학 전 교육과 고등교육 발전 등 교육 개선, 최저임금조정 등을 통한 소득분배 개선, 연금·상업양로보험 발전과 도농 주민의료보험 통합 강화 등 사회보장제도 개선, 공립병원 개혁 및 기증 의료보건기구 확대, 두 자녀 정책 전면 실시와 양로서비스시장 개방을 통한 인구 균형발전 등을 공통적으로 추진
- 샤오강(小康) 사회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가 빈곤탈피 수준을 지방정부 평가에 반영할 정도로 중시함에 따라 소득수준이 비교적 낮은 중부지역¹³⁾은 빈곤지역 환경개선 프로젝트에 중점을 두고 있음.
- 후베이성은 다비에산(大别山), 우링산(武陵山) 등 산간지역을, 허난성은 다비에산 옛 혁명기지 등을, 산시성은 뤼량(吕梁), 타이항(太行) 등지를 중심으로 산업 기초인프라 구축 및 공공서비스 보급

12) 정저우 공항경제시험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3장 나절을 참고.

13) 중부지역 중 후베이성을 제외한 5개 성의 1인당 GRDP는 중국 평균을 하회함. 2014년 중국의 1인당 GDP는 46,629위안이었으며 후베이, 허난, 후난, 안후이, 장시, 산시의 1인당 GRDP는 각각 47,145위안, 37,072위안, 40,271위안, 34,425위안, 34,674위안, 35,070위안이었음.

3. 지역별 13·5계획의 핵심정책

가. 후베이성: 양적·질적 성장을 통한 대내외 위상 강화

- 중부 내륙지역의 중요 거점인 후베이는 역사적으로 가장 부흥했던 시기의 위상을 회복하고자 13·5 기간에 양적 성장을 중시하면서 질적인 변화를 추구
 - 중앙정부의 정책기조가 질적 성장 중심으로 전환되었으나, 경제규모 및 발전 수준이 중국 내 중상위 수준인 후베이는 중부지역 내에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면서 중국 내 상위권으로 발돋움하고자 양적 성장 중시를 고수
 - 중부지역 내에서 샤오캉사회에 가장 먼저 진입하고, 경제규모를 비롯한 주요 분야에서 중국 평균 성장률의 1.5배를 달성함으로써 경제 각 부문에서 선두지역과의 격차를 줄이고 위상을 제고하려 함(현재 31개 지역 중 GRDP 9위).
 - 이를 위하여 후베이의 비교우위가 집적되어 있는 대학, 연구소, 우수인재 등을 활용하여 과학기술, 산업 및 기업의 혁신을 추구하고 이것이 경제적 성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산업 진입제도 개선, 연구자의 성과 연동 인센티브 제공, 기술혁신에 대한 자본시장의 지원 확대, 우수한 고급 과학기술 인재 유입, 연구소의 시장화 개혁 등을 추진하고자 함.
 - 후베이성에는 약 120개 대학, 120만 명의 대학생, 중서부지역 유일의 국가급 자주혁신시범구, 화중과학기술대학 및 수많은 연구소 등이 있으며 이러한 과학·교육 분야의 우위를 혁신 우위로 전환하려는 의도
 - 산업혁신 분야에서는 스마트제조 등 9대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차세대 정보기술을 비롯한 10대 산업을 발전시키고 신규 분야의 30개 성장형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100개 핵심 제조기업 육성, 우한·상양(襄陽)·샤오간(孝感) 등지에 국가급 산업시범기지 구축, 관광업 연내 총수입 4,500억 위안 달성 및 중소기업의 인수합병 혹은 시장퇴출 등을 강조
 - 이밖에 전통산업과 인터넷 플러스 정책의 접목, 실용적인 산업발전정책 연구, 대표 인터넷기업 육성, 인터넷기업의 구인난 및 금융난 관련 우대정책 등을 추진할 계획¹⁴⁾
- 또한 후베이는 우한시가 일대일로 및 창장경제벨트 전략의 거점도시로 지정된 것을 기회로 삼아 내륙지역의 개방 거점으로 발전하기 위해 △ 일대일로 해당 국가와의 경제 협력 심화 △ 국제화 수준 제고 △ 유통허브 기능 강화 △ 자유무역구 조성 △ 수출 확대 △ 물류·통관 환경 개선 등 개방 환경을 강화
 - 우한시는 2014년 창장경제벨트 전략의 창장중류지역 수운센터로, 2015년 일대일로 전략의 내륙거점도시(节点城市)로 지정되어 두 개의 중요한 국가전략이 교차하는 핵심지역 중 하나로 부상
 - 중앙의 다수 부서가 공동으로 발표한 「실크로드 경제벨트 및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건설 추진의 전망 및 행동」에서 최종 확정된 일대일로 전략의 18개 중점지역(省)에는 후베이가 포함되지 않았으나, 주요 접점이 되는 거점도시에 우한이 포함¹⁵⁾

14) 「读懂这七大关键词 你就明白湖北未来五年要做些啥」(2016. 1. 7), 荆楚网 <http://news.sina.com.cn/c/2016-01-07/doc-ifxnkmaw2127880.shtml>(검색일: 2016. 2. 27).

15) 일대일로 18개 중점지역(省)에는 신장·산시(陝西)·간쑤·닝샤·칭하이·네이멍구 등 서북 6개 성, 헤이룽장·지린·랴오닝의 동북 3개 성, 충칭·광시·윈난·티베트 등 서남 4개 성, 상하이·푸젠·광둥·저장·하이난의 동부 5개 성이 포함됨. 거점도시(市)는 우한, 시안, 란저우, 시닝, 충칭, 청두, 정저우, 창사, 난창, 허페이 등 10개 시가 지정됨. 「一带一路最终圈定18省中无湖北 武汉成节点城市」(2015. 3. 29), 中国证券网 <http://hb.sina.com.cn/news/n/2015-03-29/detail-ichmifpy2615675.shtml>(검색일: 2016. 2. 20).

- 러시아 볼가강 강변 지역과 경제무역협력 MOU를 맺는 등 일대일로 해당국가에 대한 수출 확대, 교통·통신·에너지 등 인프라 건설 참여, 장비제조 등 산업 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
- 볼가강 인근의 러시아, 모르도바, 우드무르트 공화국과 자동차제조·농산물 가공·찾잎 수출 등과 관련된 경제협력을 추진 중임.¹⁶⁾
- 현재 우한에 영사관을 두고 있는 프랑스, 영국, 한국과는 지속가능한 발전, 스마트 도시 건설 및 문화체육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신규 영사관 유치, 해외 유명대학 및 유학생 유치, 우호·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 강화 등을 추진
- 창장경제벨트를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는 종합교통망을 활용해 우한시를 국가급 유통 거점도시로 발전시키고 원자재 교역 시장, 농산물 도매시장의 집산기능을 강화해 내륙지역 유통 허브로 발전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에서 시행된 서비스업 개방 정책, 네거티브리스트와 같은 투자관리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우한, 이창, 상양 등 도시에 내륙형 자유무역시험구를 조성
- 대외무역 확대를 위해 수출기지와 수출브랜드를 육성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선진기술과 핵심설비·부품의 수입을 증대시키며, 서비스무역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
- 2016년 우한시는 상하이, 선전 등 지역과 함께 서비스무역 혁신발전시범지(服务贸易创新发展试点)로 지정되어 향후 2년간 서비스무역 관리시스템 개선, 서비스무역 편리화 등 서비스무역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 개선에 주력할 계획¹⁷⁾
- 우한에서 상하이로 이어지는 내륙 수운을 발전시키고, 우한-아세안 및 우한-일본-한국 간 국제 수운항로와 우한-유럽 간 국제화물열차 상시 운행 등을 통해 국제운송통로를 확대하며, 종합보세구 건설 및 연해·변경지역과의 통관협력을 강화

나. 허난성: 정저우 공항경제시험구 본격 발전

- 역내 도로·철도 인프라는 양호하지만 지리적 제약으로 수운·해운 교통망을 활용하기 어려웠던 허난성은 2013년 중국의 첫 국제전자무역서비스(e-trade) 시범지로 선정되고, 공항경제시험구 발전계획이 중앙의 비준을 획득함에 따라¹⁸⁾ 12·5 계획 기간 동안 물류, 신산업, 개방 측면의 성과가 가시화됨.
- 항공 물류를 활용한 교역 확대 및 연관산업 발전을 위하여 정저우 신징(新郑)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항공물류, 전자정보·바이오의약 등의 첨단제조업, 전자상거래·컨벤션·창고·유통·서비스아웃소싱 등의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하고 통관·물류 및 역외 전자상거래 환경 등 개방 여건을 개선 중임.
- 12·5 기간 허난성의 무역액은 연평균 30.6%씩 성장하여 5년 총액이 11.5 기간의 2.4배인 1조 7,686억 위안을 기록하였고¹⁹⁾ 중국의 무역이 감소한 2015년에는 중국 평균(-7%)보다 22.3%p 높은 성장률(15.3%)로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4,600억 위안)을 달성, 특히 중국의 수입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21.9%의 높은 수입증가율도 기록²⁰⁾

16) 「湖北与伏尔加河沿岸联邦区签合作协议 涉17方面项目」(2015. 8. 11).

17) 「武汉“试点”服务贸易创新发展」(2016. 2. 21).

18) 정저우 공항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공항에 비하여 승객 및 화물 운송규모가 아직 적지만, 이들 대도시는 영공이 매우 복잡하여 비행기 운행 시 영향을 받으며 영공이 자주 제한되지만, 정저우는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 유일한 공항임. 2013년 당시 중부지역 6개 성에는 14개 국제화물항공노선이 개통되어 있으며 그중 13개 노선에 정저우가 포함되어 있었음.

19) 「2015年河南省进出口4600.2亿元 总额创历史新高增速高出全国22.3个百分点」(2016. 1. 15), 河南日报 <http://www.henan.gov.cn/jrhn/system/2016/01/15/010614061.shtml>(검색일: 2016. 2. 26).

20) 「2015年河南省进出口4600.2亿元 总额创历史新高增速高出全国22.3个百分点」(2016. 1. 15), 河南日报<http://www.henan.gov.cn/jrhn/system/2016/01/15/010614061.shtml>(검색일: 2016. 2. 26).

- 현재 스마트폰 산업과 같은 신산업 관련 교역규모가 허난성의 전통산업을 대체하며 허난성의 지주산업이 되고 있음.
 - 2015년 허난성의 휴대폰 수출액은 1,639.4억 위안으로 허난성 전체 수출의 61.1%이며, 휴대폰 생산을 위해 수입한 집적회로·카메라·원격제어장치·인쇄회로기판·콘덴서 등이 995.7억 위안으로 성 전체 수입의 52%를 차지
 - 또한 폭스콘의 휴대폰 물류창고가 홍콩에서 정저우 종합보세구로 이전됨에 따라, 전 세계의 아이폰 수리가 정저우에 집중되고 이를 통해 공항의 항공 화물량 및 운임수입 증대 등 부가적 효과도 나타남. 실제로 2015년 수리 목적의 휴대폰 수입액은 106억 위안으로 761.2배 증가함. 2015년 허난성 화장품 수입은 42.1배 증가한 22.2억 위안 기록
 - 2015년 허난성 내 폭스콘 및 관련기업의 수출입은 허난성 전체의 67.5%에 달하고, 아이폰 신규 모델 출시 일정에 맞추어 매년 9월~이듬해 1월까지의 교역규모가 현저히 크며 2~8월에는 상대적으로 적음. 2015년 10월에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월간 교역액(600억 위안)을 달성함.
 - 또한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의 수출입 규모가 허난성 전체 수출입의 70% 이상으로 대외무역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2015년 경우 3,250.3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20.8% 성장했으며 허난성 전체의 70.7%를 차지한 반면, 민간기업의 교역액은 962.5억 위안(20.9%)에 불과
 - 이밖에 유럽, 미국, 아시아 지역과의 항공노선이 구축되었고 차이나요(菜鸟)²¹⁾, UPS, Fedex 등의 물류기업과 창웨이(创维), 쿠팰드(酷派), 중싱(中兴), 텐위(天宇) 등 폭스콘 관련 스마트폰 제조기업이 입주하였으며, 공항의 화물 물동량이 2013년의 25.6만 톤에서 2015년 40만 톤으로 증대되는 등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음.²²⁾
 - 허난성 정부와 차이나요(菜鸟) 양측은 신형물류창고 및 전자무역산업구, 운송기지, 보세물류기지, 전자무역산업원 건설 등 4가지 사업이 포함된 「중국 스마트 물류 핵심망(정저우 공항 시험구) 프로젝트 투자협력 협의(中国智能骨干网(郑州航空港实验区)项目投资合作协议)」를 2013년 체결하였으며 이를 공항경제시험구에서 시행하기로 함.²³⁾
 - 이밖에도 정웨이(正威) 그룹과 선전(深圳) 휴대폰협회 소속 268개 휴대폰 및 부품생산기업이 공항경제시험구와 스마트 단말기 연계 협력 사업을 추진 중이며 마이크로소프트, 순펑(顺丰) 물류, Youkia 정밀기계 등이 투자금 10억 달러 이상의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²⁴⁾
- 이에 허난성은 공항경제시험구 사업을 지역경제발전의 중요 부분으로 강조하면서 13·5 계획기간에 △ 공항경제시험구의 규모화 △ 정주·업무 환경 개선 △ 대외개방 환경 개선 등에 역점을 두어 발전을 가속화할 계획²⁵⁾
- 허난성 13·5 계획 건의문에는 다른 지역에서 일대일로 관련 정책을 우선시하는 것과는 다르게, 공항경제시험구 정책을 우선적으로 명시하면서 핵심 사업으로 중시
 - 13·5 계획기간 동안 명성있는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회사 및 부품회사, 연구개발센터를 유치하여 세계적인 스마트폰 제조기지를 조성함으로써, 2020년 스마트폰 단말기 영업소득을 5,000억 위안 이상 달성하고자 함.
 -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통해 항공물류, 전자정보, 바이오의약, 전자상거래 등 핵심 산업의 연간 영업소득이 1,000억 위안 이상인 클러스터를 3개 이상 조성할 계획
 - 2016년에는 폭스콘 산업클러스터, 정웨이(正威) 핸드폰 산업단지, 루디(绿地) 컨벤션센터 등 영업소득 500억 위안 규모의

21) 차이나요는 알리바바(阿里巴巴), 순펑(顺丰)그룹, 선통(申通), 위엔통(圆通), 중통(中通), 윈다(韵达)그룹 등 물류, 금융 관련 기업이 공동으로 '중국 스마트 물류 핵심망(CSN)' 프로젝트를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한 물류기업임.

22) 「河南保税物流中心贸易将超100亿, 郑州航空港去年GDP 520.75亿」(2016. 2. 18).

23) 차이나요는 인구의 25% 이상인 2,400만 명 이상이 인터넷 쇼핑을 이용하며 중국의 교통 요지에 위치하면서 국제물류센터가 구축되고 있는 허난성의 발전가능성을 고려하여 진출을 결정함.

24) http://www.kmishanghai.org/?document_srl=429695&mid=News2kr.

25) 「“十三五”末航空港力夺全球手机制造话语权」(2016. 1. 22).

- 중점 프로젝트를 300개 이상 추진하고 아마존, 이베이 등 국내외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의 유치에 주력할 계획임.
- 공항경제시험구 내 도로 총연장을 600km 이상으로 확대하고 고속철도 역을 건설하여 주변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IT 기술을 활용한 도시기능 발전 및 녹화율 제고 등을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
- 베이징, 상하이, 시카고, 프랑크푸르트 등 항공거점 도시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식품, 약품, 의료기기, 우편, 식물 등과 관련된 전문항구(口岸)를 구축하며 보세물류센터 확장 건설 프로젝트를 완공하는 등 물류·통관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2020년 무역액을 2015년의 두 배로 증대시키고자 함.
- 이를 통해 정저우 공항경제시험구의 GRDP를 2015년의 521억 위안에서 2020년 1,000억 위안으로 제고

다. 산시성: 석탄산업의 구조조정

- 석탄산업의 적자 누적,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혁 강화 등으로 인하여 석탄산업 의존도(GRDP의 80%)가 높은 산시성의 산업구조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
- 경기 둔화와 풍력·원자력·태양광 등의 신에너지 개발 확대에 따라 석탄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석탄가격이 2011년 말 800 위안/톤에서 2015년 말 390위안/톤으로 급락함에 따라²⁶⁾ 2014년 7월부터 산시성 석탄산업의 적자가 지속되어 2015년 누적적자가 전년대비 108.3억 증가한 94.3억 위안에 달함.²⁷⁾
 - 석탄가격 하락의 여파가 기업 손실을 통해 최저 기층의 생계에도 영향을 미침.
 - 2015년 3사분기까지의 산시성 석탄기업의 순손실 규모는 70.4억 위안이며 체불 임금은 35억 위안, 체납 사회보험료는 109억 위안에 달함.
- 이에 산시성의 2015년 경제성장률은 34년 만에 최저 수준인 3.1%를 기록하였으며²⁸⁾ 이는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중국 성장률(6.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산시성 경제는 사상 최대 난관에 봉착²⁹⁾
 - 산시성의 성장률이 2013년 8.9%, 2014년 4.9%, 2015년 상반기 2.7%로 급락하고 있어, 외부 쇼크나 특정 분야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부각됨.
 - 또한 산시성 내 현시(县市)급 지역에서는 마이너스 성장이 나타나고 있으며, 2015년 산시성 도시의 80%가 재정수입이 감소하여 그중 절반은 재정수입 하락폭이 전년동기 대비 15~41%p를 기록하였으며, 산시성의 119개 현(县) 중 103개 현에서 임금을 체불
- 한편 중국정부는 최근 공급측 개혁의 일환으로 석탄, 철강 등 생산과잉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을 강조
 - 석탄산업의 경우 2016년부터 3~5년 동안 석탄생산량을 약 5억 톤 감축하고, 향후 3년 동안 신규 광산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을 중지할 것임을 발표³⁰⁾
 - 특히 석탄 생산량이 많은 산시성은 네이멍구, 산시(陝西)성, 닝샤회족자치구와 함께 연간 생산량 60만 톤 이하의 탄광을 퇴출시킬 것을 촉구³¹⁾

26) 「시름깊은 석탄산업, 중국경제와 닮은 꼴」(2016. 2. 12).

27) 「山西遇上最困难时期GDP增速3.1%创34年来最低」(2016. 1. 27), 上游新闻 http://finance.ifeng.com/a/20160127/14193831_0.shtml(검색일: 2016. 2. 22)

28) 31개 성급 단위 중 랴오닝성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준임.

29) 「山西遇上最困难时期GDP增速3.1%创34年来最低」(2016. 1. 27), 上游新闻 http://finance.ifeng.com/a/20160127/14193831_0.shtml(검색일: 2016. 2. 22).

30) 「国务院关于煤炭行业化解过剩产能实现脱困发展的意见」(2016. 2. 5).

- 이에 산시성은 13·5규획 기간 동안 지주산업인 석탄산업의 개혁과 여타 산업의 발전 가속화를 핵심 목표로 하고, 중앙의 구조조정정책을 준수하면서 석탄산업의 6대 전환 및 정책 및 석탄 외 7대 산업의 혁신정책 등 자발적인 개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³²⁾.
 - 중앙정부 정책에 맞추어 일부 석탄기업을 퇴출시키고 석탄생산량을 자발적으로 감축하는 한편, 위법으로 광산을 건설·운영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광산권 임대(出让) 관리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석탄 생산량 통제를 강화
 - 2016년 중앙정부가 제시한 새 감축목표에 따라 산시성이 석탄생산량을 얼마나 감축할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음.
 - 2016년부터 광산권을 입찰공고 경매거래방식에 의거해 임대하고, 각 지역 하급정부가 매년 성 정부에 연간 광산권 임대 계획을 제출하고 이 계획에 포함된 광산권만 임대 가능케 하는 등 석탄 관리체제 강화³³⁾
 - 또한 석탄산업이 더욱더 시장 중심적이고 저탄화 및 고효율화를 추구하며 순환경제 및 생태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개혁(6대 전환)하는 데 역점
 - 석탄·전력 회사간의 연합, 석탄·코크스·철강회사 간의 연합을 추진해 석탄·전력 산업체인을 강화함으로써 석탄 이용 효율을 향상시키면서 청정화, 저탄화, 고효율 집약화를 추진
 - 문화관광, 장비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식품의약, 고급 서비스업 등 7대 산업에 대하여 각 업종별로 별도의 13·5 시기 발전계획을 마련하여 발전목표와 중점사항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지원정책을 개발할 계획
 - 타이산, 윈강석굴, 핑야오고성과 같은 역사유적 및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상품을 브랜드화하고, 문화·스포츠·농업·공업 등 산업이 융합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문화관광산업 발전에 특히 역점을 두고 있음.
 - 장비제조업기지 조성 및 기술 개발을 통해 궤도교통, 중형기계, 방직·농업기계 등의 장비제조업을 발전시키고 석탄층 메탄가스,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의 신에너지 산업을 육성
 - 또한 빅데이터, LED, 태양광, 전기자동차, 전자설비, 바이오제약 등의 신산업과 운수, 컨벤션, 숙박·요식업 등의 서비스업을 육성
 - 신산업 및 문화, 관광, 체육 기금을 조성하여 관련 분야 중점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능력을 강화하고 석탄산업을 대체할 성장동력을 발굴

4. 평가 및 전망

가. 지역 종합

- 산시성을 제외한 중부지역은 13·5규획 기간에도 중국 평균(6.5%) 이상의 비교적 빠른 성장(8% 내외)을 지속할 전망이다.
- 12·5규획 기간 투자 중심의 성장을 유지해왔으나 중부지역은 교통, 물류, 도시 확대 등 투자를 통한 성장 여력이 아직 남

31) 상동.

32) 「山西新常态：推进煤炭“六型”转变 培育七大产业」(2015. 1. 31), 中国煤炭新闻网 <http://www.cwestc.com/newshtml/2015-1-31/359983.shtml>(검색일: 2016. 2. 24)

33) 「《山西省煤炭资源矿业权出让转让管理办法》出台」(2016. 1. 14).

아있어 13·5 기간에도 투자가 중부지역의 주요 성장동력이 될 것임.

- 중부지역 역내 도시 간 교통망 구축, 주변지역 및 해외와의 물류기능 확대, 토지의 도시화 추진 등은 상대적으로 발전 수준이 낮은 중부지역이 성장하기 위하여 여전히 필요한 인프라임.
- 중부지역의 소득 수준은 중국 평균보다 낮지만 그 성장률은 평균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어 13·5 기간 소비 증가율도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며, 이는 지역 경제성장에 활력이 될 전망이다.
- 중국의 수출 및 수입 급감은 주요 교역기능이 집중되어 있는 연해지역의 성장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으나, 대외 개방도가 낮은 중부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전망이다.
- 오히려 이러한 구조적 전환기에 허난성은 항공 등 복합 물류기능을 강화하면서 수출과 수입이 급증하고 있으며, 2020년 무역액 목표를 2015년의 2배로 설정함.
- 한편 산시성은 성장률 목표가 6%로 중부지역에서 가장 낮고 최근 몇 년간 3~4%의 성장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중앙정부가 강력한 구조조정 추진을 선포한 석탄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전망
- 산시성의 성장목표(6%)는 산업 성장, 투자 및 소비 확대, 정책 효과 등을 근거로 예측한 결과이기 보다는 사오강사회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호에 불과함.³⁴⁾

■ 중부 6개 성은 지리적 인접성에 의해 중부권으로 분류되지만 부존자원, 경제구조 등이 상이하어 각 지역의 경제적 필요에 의거하여 경제권을 구축하고자 하며, 창장경제벨트 및 일대일로 등 국가 전략이 중시되는 13·5 기간에는 이러한 각개 발전이 더욱 심화될 것임.

- 중부지역 내 가장 큰 경제권은 후베이성, 후난성, 장시성이 참여하는 창장중류도시군으로, 개별 지역만으로는 경제적 위상 및 파급력이 작은 3개 지역이 연합하여 중부 역내의 통합경제권을 구축하고 공동 발전을 도모
- 중부지역 최북부에 위치한 산시성은 13·5 계획을 통해 베이징-톈진-허베이 및 환발해 지역과의 공동발전을 추진
 - 석탄자원에 주로 의존하는 산시성은 자신과 산업구조가 유사한 허베이성처럼 수도권 경제와의 공동 발전을 통해 산업고도화 및 성장을 추구하고, 산시성 남부와 인접한 허난성 및 기타 중부지역보다는 경제적으로 발전한 환발해 등 인근 북부 경제권과의 협력을 원하고 있음.
- 중부지역의 동쪽에 위치한 안후이성은 예전부터 인접한 창장삼각주(상하이, 장쑤, 저장)지역의 산업이 이전하여,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창장삼각주 경제권에 합류하고자 하였음.
 - 기존 창장삼각주지역에 소재하였던 냉장고, 세탁기, TV 등 백색가전 제조업체들이 이 지역의 인건비 상승, 고용 및 환경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하여 물류환경이 양호하면서 각종 비용이 저렴한 안후이성으로 대거 이전하여, 현재 안후이성은 중국 최대 백색가전 제조기지로 성장하였음.
- 한편, 허난성은 인구 1억 명의 거대시장으로서 주변 거대경제권으로 합류하기보다는 허난성을 중심으로 인접지역을 포함한 독자 경제권을 구축하고자 함.
 -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허난성은 정저우 공항경제시범구를 중심으로 인접한 주요 도시와의 철도, 도로 등을 빠르게 확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내륙지역 내 무역, 물류, 교통, e-trade 등의 허브 기능을 담당

34) 「山西遇上最困难时期GDP增速3.1%创34年来最低」(2016. 1. 27), 上游新闻 http://finance.ifeng.com/a/20160127/14193831_0.shtml(검색일: 2016. 2. 22)

- 13·5 기간 빈곤탈피가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중부지역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을 통해 해당 정책 추진을 지원함으로써, 해외소비재 및 브랜드 제품에 대한 수요를 흡수할 필요가 있음.
- 빈곤인구가 연해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중부지역은 13·5계획 기간 동안, “5년 내에 빈곤을 탈피하겠다”는 중앙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임.
- 최근 중국은 정부 주도로 CSR 활동이 강조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인식도 역시 제고되고 있기 때문에 중부지역에 진출 의향이 있는 기업은 빈곤 구제와 관련된 CSR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현지 정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기업의 브랜드 신뢰도 및 홍보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음.
- 중부지역은 아직까지 관치주의적 성향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해당지역 정부와의 유대관계가 성공적인 비즈니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역정부의 정책 사업을 기업 측면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

나. 후베이성

- 후베이성은 13·5계획 기간에도 여전히 경제적 위상 회복을 위하여 과학기술 혁신, 잠재력의 경제 성과화, 국가 전략의 교차 거점 활용 극대화 및 개방환경 강화 등을 추진할 전망이다.
- 12·5 계획기간 투자 중심의 성장 특징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던 후베이성은 13·5 시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구조개혁, 신규 수요와 공급, 대외수출 등을 강조
- 과학·교육·인재 등 연구 인프라, 항공·물류 등 교통인프라, 자동차·광산업 관련 대기업 등 산업인프라가 우수하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잠재력이 경제적 성과로 충분히 발현될 수 있는 정책 마련과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한 상황임.
- 실제로 우한시는 상장기업 수·정책지원·연구능력 등 창업 인프라를 중심으로 판단한 창업유망도시 순위 2위를 차지했으나, 경제발전수준·혁신능력·창업비용 및 활력·용자 환경·중소기업 경영활력 등 성과지표는 9위에 머물고 있음.
- 창장경제벨트 전략의 중류지역 수운센터 및 일대일로 전략의 내륙거점도시로 우한시가 지정되어 이를 통해 수출, 인프라 사업 및 대외 산업협력 확대를 모색
- 중부지역 유일의 한국 공관 소재지임을 고려하여 후베이성의 국제화 사업,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사업 등 정부간 협력이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후베이성의 13·5계획에는 한국과 연결되는 수운통로 개발, 스마트 시티 건설 및 문화체육 분야의 한-후베이 공동 협력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한-후베이 정부 간 협력 수요 분야 및 방법 등에 대해 긴밀히 논의하여 우리기업의 진출 공간을 마련함.
- 2020년 세계 최대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으로 부상할 전망이다인 후베이성이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사업 추진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IT 및 환경 기술, 배출권 거래 관련 금융 분야 등에서 협력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음.
- 후베이성은 중국 내 7대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지역으로 2015년부터 배출권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2015년 5월 중국 전체 거래량의 48%를 차지하는 주요 시장으로 부상하였음.
- 또한 저탄소 관련 규제 정책과 함께 급성장하고 있는 환경설비 시장에 대한 진출도 유망
- 탄소배출권 거래는 철강, 전력, 화공, 전자제, 제지, 비철금속, 운수업 등 우리기업과도 관련 있는 여러 분야를 포함하고

있기에, 향후 전국화될 정책을 후베이성의 시범정책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임.

■ 13·5 기간 후베이성은 경제집중도가 과도한 우한시의 기능을 분화하고 역내 지역간 조화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정책적 지원 및 기능 이전 등으로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이창, 상양 등에 대한 진출을 고려할 수 있음.

- 거대 소비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우한시는 자동차, 철강, ICT 산업이 발달해 있으나 최근 우한의 기능 최적화를 위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업(신에너지자동차, 차세대 디스플레이, 첨단의료기기 등) 및 서비스업(금융, 디자인, 헬스케어, 물류, 사업 서비스 등)의 중심 기능 위주로 산업 재편을 추진 중임.
- 후베이성은 내륙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해 창장 중부를 수운물류 및 교통허브로 발전시켜 창장 유역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자유무역구 전략을 제시했으며 여기에는 우한시, 상양시, 이창시가 포함됨.
- 우한시에 이어 후베이성의 2대 도시인 이창시는 삼협댐 하류에 위치한 항구 도시이며 중국의 그랜드캐년으로 불리는 은시대협곡, 삼협댐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며 전력, 물류, 화공, 식품가공, 전자재 산업이 발전해 있어 관광, 물류, 식품 등 분야의 진출이 유망함.
 - 최근 10.9km의 중국 최초 수상도로(이중 4.4km는 협곡 사이)가 개통된 이창시는 2016년 4월부터 인천, 대구, 부산과의 직항노선(전세기)이 개통될 예정
 - 후베이성이 자유무역시험구로 추가 지정이 될 경우, 이창시는 우한시와 함께 창장 중류의 중요한 항구로 부상하며 물류 기능이 강화될 것임.
- 상양시는 우한시와 함께 후베이성의 주요 자동차 산업기지로 닛산, 푸조, 시트로엥 등 외국 자동차회사가 이미 진출한 지역이며 식품, 방직, 의약산업이 발전해 있어 자동차 기계 부품, 식품 등의 수출 및 협력 지역으로 고려할 수 있음.

다. 허난성

■ 수운 활용이 어려운 지리적 한계를 항공 물류 구축을 통해 극복하고 있는 허난성은 13·5 기간 동안 정저우 공항경제시범구의 본격적인 발전을 위하여 항공 물류와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신산업 육성 및 고급인재 유치에 역점을 두면서 복합 물류 인프라 강화, 개방환경 개선 등을 추진할 전망이다.

- 2015년에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액을 달성한 허난성은 내륙이라는 지리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대외무역이 급증하고 이와 관련된 신산업이 기존 우위산업의 침체를 대체·보완해 주고 있음.
 - 13·5 기간의 경제성장률 목표는 중국 평균보다 1%p 이상 높게, 2020년 무역액은 2015년의 2배로 설정
- 항공 물류를 통해 수출이 가능한 스마트폰 중심의 전자정보산업, e-trade 시범지역의 우위를 활용할 수 있는 국제 전자상거래, 복합 물류 및 핀테크 등 금융과 같은 신산업 발전을 위하여 각 분야의 우수인재를 육성하거나 해외에서 유치하고 글로벌 기업 및 R&D 센터를 유치
- 정저우 공항경제시범구의 종합 물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변지역과 도로·철도 교통망 구축, 항공 거점도시와의 협력 강화, 전문항구 구축 및 보세물류센터 확대 등을 통해 2020년 공항경제시범구의 경제규모를 2015년의 2배로 확대

■ 허난성은 공항경제시범구, 정저우-유럽 철도망, 국제 e-trade 시범사업 등의 발전으로 신선유류까지 직수입하는 등 수

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신선식품 등 일용소비재(FMCG)³⁵⁾의 중국 수출 확대를 위한 내륙 거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함.

- 허난성의 수입 중 휴대폰 생산과 관련된 수입의 비중이 절반 정도 되지만, e-trade 시범지의 우대혜택(1,000위안 이하 제품에 대한 통관 및 세금 면제)이 적용되는 신선식품, 화장품 등 소비재의 수입도 급증
 - 2015년 화장품 수입규모는 22.2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42.1배 증가하였고, 체리 등 신선식품의 수입증가율도 높았음.
- 신선우유는 유통기한이 짧고 콜드체인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만이 거의 유일하게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었으나, 2015년 10월 허난성이 항공 물류를 통해 호주산 신선우유를 직수입하였으며³⁶⁾ 향후 이러한 물류기능을 확대하여 인근 지역으로 수입제품을 직배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최근 허난성의 주민소득이 향상됨에 따라 신선우유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였으나, 그동안 주로 상하이, 저장 등 주변 연해 대도시를 통해 신선우유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물류 비용이 많이 들었음.
 - 그러나 직수입을 통해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2015년 6월 중-호주 FTA가 체결됨에 따라 신선우유의 수입관세(12.3%)가 철폐되어 저렴하게 신선우유 수입할 수 있게 됨.
 - 호주의 신선우유 수입업체인 Capelfarm은 정저우시의 지리적 우위로 인하여 주변 내륙지역으로 판매를 확대하기에 유리하여 수입을 결정
- 허난성의 항공 물류를 중심으로 복합 물류기능이 강화될수록 신선식품, 화장품 등 소비재에 대한 수입수요가 더욱 증대될 것이므로 한국 역시 허난성에 대한 수출 확대 및 거점화 노력 필요
 - 현재 한국은 신선식품의 대중수출 지원을 위하여 칭다오에 복합물류단지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산시(陝西)성 시안(西安)으로 확대하여 내륙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할 계획
 - 허난성은 자체 인구가 1억 명인 거대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진출 가치가 있으며, 지역발전 차원에서 개선되는 물류 기능을 활용하여 주변지역까지 확대 진출이 가능함.
 - 특히 한중 간 검역검사 협력 MOU 체결을 통해 수출이 가능해진 삼계탕, 김치, 쌀 등의 수출 거점지역으로 활용 가능
- 이밖에 허난성이 최근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신선제품 등의 수출입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콜드체인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이 필수적이므로 이와 관련된 물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라. 산시성

- 석탄산업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 압력에 직면한 산시성은 13·5 기간 석탄산업 개편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 및 육성에 주력할 전망
 - 중국의 공급측 개혁에 따라 2016년 중 석탄산업의 공급과잉 해소와 부실기업의 퇴출 가속화 예상
 - 생산능력 3만 톤 이하, 안전생산기준 미달 기업, 사고경력이 있는 생산능력 9만톤 이하 석탄기업 등 총 13개 유형의 소형 석탄기업은 2016년 내 생산을 정지해야 함.

35) Fast Moving Consumer Goods(FMCG)는 식품·음료, 비누·세제·청소용품, 화장품, 모발관리·개인청결·구강청결 제품 등 소비속도와 회전율이 빨라 자주 재구매 하는 비내구성 소비재를 통칭함.

36) 「首批进口鲜牛奶“空降”河南 来自澳大利亚」(2015. 10. 30), 大河网, <http://news.dahe.cn/2015/10-30/105897144.html>(검색일: 2016. 2. 25).

- 또한 장기적으로 중국의 발전 수준이 제고됨에 따라 조방(粗放)적·오염 유발 성장모델은 결국 폐기될 것이며, 석탄사용량이 일정 수준 유지된다 하더라도 그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석탄 의존형 경제로는 한계
- 노동집약 업종이자 국유기업 중심인 석탄산업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은 대량 실직과 재정적자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수요까지 위축 우려
- 이에 산시성은 석탄산업의 시장화, 저탄화, 고효율화 및 안전강화 등을 통한 고도화와 함께 석탄산업 위축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신규 동력이 필요하나 아직 명확한 전략산업을 찾지 못한 것으로 평가

■ 산시성의 석탄 구조조정을 통해 중국 공급측 개혁의 과제와 향후 추진방향을 예측하고 신규 동력산업 분야에서의 경제 협력을 타진해볼 수 있음.

- 석탄의 효율적 이용 및 청정 생산기술 등 석탄산업 고도화 관련 신기술 분야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전망
- 풍력·태양광·바이오매스 등의 신에너지, 레일교통·중형기계·농업기계 등 장비제조업, 신에너지자동차·LED 등 신산업을 비롯하여 문화·관광·물류·건강·양로 등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의 정책 지원 및 우대혜택을 집중시킬 수도 있으므로 추후 산업육성정책의 변화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국문자료]

- 노수연 2011. 「주요 지역별 12차 5개년 계획의 종합평가」. 중국 성별 동향 브리핑 11-11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양평섭·박민숙. 2015. 「중국 13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Vol. 15, No.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지현 2011. 「주요 성별 12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과 평가(7): 중부 6개 성」. 중국 성별 동향 브리핑, 11-08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시름깊은 석탄산업, 중국경제와 닮은 꼴」. 2014. 『뉴스핌』. (2월 12일).
<http://www.newspim.com/news/view/20160212000338>(검색일: 2016. 2. 18).

[중문자료]

- 정지현 2011. 「주요 성별 12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과 평가(7): 중부 6개 성」. 중국 성별 동향 브리핑, 11-08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5年河南经济运行稳中有进 稳中向好」. 2016.
<http://www.qxzf.gov.cn/zhengwugongkai/tongjigongbao/2016-02-01/18983.html>(검색일: 2016. 2. 15).
- 「2016年江西省政府工作报告」. 2016. <http://jiangxi.jxnews.com.cn/system/2016/02/16/014684434.shtml>(검색일: 2016. 2. 15).
- 「2016年山西省政府工作报告」. 2016. http://district.ce.cn/newarea/roll/201602/03/t20160203_8728218.shtml(검색일: 2016. 2. 15).
- 「2016年安徽省政府工作报告」. 2016. <http://ah.anhuinews.com/system/2016/02/21/007227970.shtml>(검색일: 2016. 2. 15).
- 「2016年湖南省政府工作报告」. 2016. http://district.ce.cn/newarea/roll/201602/03/t20160203_8727215_1.shtml(검색일: 2016. 2. 15).
- 「2016年湖北省政府工作报告」. 2016. http://hb.ifeng.com/a/20160204/4261252_0.shtml(검색일: 2016. 2. 15).
- 「2016年河南省政府工作报告」. 2016. <http://www.gkstk.com/article/wk-65032140730211.html>(검색일: 2016. 2. 15).
- 「国务院关于煤炭行业化解过剩产能实现脱困发展的意见」. 2016. 『中国政府网』. (2월 5일)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6-02/05/c_128706840.htm(검색일: 2016. 2. 18).
- 「武汉“试点”服务贸易创新发展」. 2016. 『中国网』. (2월 21일)
<http://finance.china.com.cn/roll/20160221/3592901.shtml>(검색일: 2016. 2. 18).
- 「《山西省煤炭资源矿业权出让转让管理办法》出台」. 2014. 『健康界』. (1월 14일)
http://shanxi.china.com/fz/xfsd/11162457/20160114/21140964_all.html(검색일: 2016. 2. 18).
- 「山西省发布2015年经济运行情」. 2016. http://www.gov.cn/xinwen/2016-01/26/content_5036227.htm(검색일: 2016. 2. 15).

- 「“十三五”末航空港力夺全球手机制造话语权」. 2016. 『河南日报』. (1월 22일)
<http://www.zhengzhou.gov.cn/html/www/news1/20160122/133732.html> (검색일: 2016. 2. 18).
- 「中共山西省委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 2015.
<http://cpc.people.com.cn/n/2015/1209/c64387-27906758.html> (검색일: 2016. 2. 15).
- 「中共河南省委关于制定河南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 2016.
<http://www.henan.gov.cn/jrhn/system/2016/01/04/010611341.shtml> (검색일: 2016. 2. 15).
- 「湖北与伏尔加河沿岸联邦区签合作协议 涉17方面项目」. 2015. 『新华网』. (8월 11일)
http://www.hb.xinhuanet.com/2015-08/11/c_1116207652.htm (검색일: 2016. 2. 18).
- 「湖北制定全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 2016.
http://www.hbfgw.gov.cn/ztlm/gdzt/sswghbz/zgzt_2601/wj_2603/201601/t20160105_92249.shtml (검색일: 2016. 2. 15).
- 「河南保税物流中心贸易将超100亿, 郑州航空港去年GDP 520.75亿」. 2016. 『华豫网』. (2월 18일)
<http://www.henan1.cn/guonei/2016-02-18/27229.html> (검색일: 2016. 2. 18).
- 「山西日报头版刊文: 如何看待2.7%经济增速」. 2015. 7. 28.
http://www.guancha.cn/economy/2015_07_28_328479.shtml (검색일: 2016. 2. 23).
- 「韩国超越东盟成为河南第二大贸易伙伴」. 2016. 2. 13. 中国网 <http://henan.china.com.cn/html/news/2016/0203/18549.html>
 (검색일: 2016. 2. 24).
- 「2015中国最宜创业城市排行榜 武汉仅次于北京排第二」. 2015. 12. 31. 荆楚网. <http://hb.qq.com/a/20151231/013837.htm> (검색일: 2012. 2. 25).
- 「读懂这七大关键词 你就明白湖北未来五年要做些啥」. 2016. 1. 7. 荆楚网.
<http://news.sina.com.cn/c/2016-01-07/doc-ixnkmaw2127880.shtml> (검색일: 2016. 2. 27).
- 「一带一路最终圈定18省中无湖北 武汉成节点城市」. 2015. 3. 29. 中国证券网.
<http://hb.sina.com.cn/news/n/2015-03-29/detail-ichmifpy2615675.shtml> (검색일: 2016. 2. 20).
- 「2015年河南省进出口4600.2亿元 总额创历史新高增速高出全国2.3个百分点」. 2016. 1. 15. 河南日报
<http://www.henan.gov.cn/jrhn/system/2016/01/15/010614061.shtml> (검색일: 2016. 2. 26).
- 「山西遇上最困难时期: GDP增速3.1%创34年来最低」. 2016. 1. 27. 上游新闻.
http://finance.ifeng.com/a/20160127/14193831_0.shtml (검색일: 2016. 2. 22).
- 「山西新常态: 推进煤炭“六型”转变 培育七大产业」. 2015. 1. 31. 中国煤炭新闻网.
<http://www.cwestc.com/newshhtml/2015-1-31/359983.shtml> (검색일: 2016. 2. 24).
- 「首批进口鲜牛奶“空降”河南 来自澳大利亚」. 2015. 10. 30. 大河网. <http://news.dahe.cn/2015/10-30/105897144.html> (검색일: 2016. 2. 25).
- 「湖北与伏尔加河沿岸联邦区签合作协议 涉17方面项目」. 2015. 8. 11.
- 「“十三五”末航空港力夺全球手机制造话语权」. 2016. 1. 22.
- 「武汉“试点”服务贸易创新发展」. 2016. 2. 21.

[웹사이트]

중국국가통계국 연도별 통계연감. <http://www.stats.gov.cn/tjsj/ndsj/>(검색일: 2016. 2. 15).

CEIC Database. <http://www.ceicdata.com/>(검색일: 2016. 2. 15).

한국무역협회 중국통계. <http://stat.kita.net/stat/istat/cts/CtsProvImpExpList.screen>(검색일: 2016. 2. 27)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keri.koreaexim.go.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007003001001>(검색일: 2016. 2. 28).